



순수하고 정직한 아름다움

네덜란드 유학 때 나는 기독교 미술사학자 로크마커 (Hans Rookmaaker) 교수의 강의를 청강한 일이 있다. 하루는 어떤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슬라이드로 비추어 주면서 “이건 춘화 (pornography)야!” 했다. 학생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로크마커 교수는 2차 대전에 네덜란드 해군장교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독일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같이 잡혀 온 화란의 기독교 철

학자 메커스 (J. P. A. Mekkes)를 만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쉐퍼 (F. Schaeffer) 박사를 만나 네덜란드 라브리 (L'Abri)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전도와 구제에 남다른 열정을 보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며 카이퍼와 도여베르트의 개혁주의에 충실하였다. 그는 재즈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책을 썼고 서양 근대 미술에 일가견을 가진 미술사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니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춘화라 했으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유명한 그림들을 무수히 보았지만 나는 그림을 보는 안목을 갖지 못해서 그 그림이 왜 춘화란 악평을 받았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떠한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러나 로크마커가 프랑스의 가톨릭 화가 루오 (Georges Henri Rouault)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화가라 한 것을 고려하면 그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20세기에서 가장 정열적인 기독교 화가로 알려진 루오는 물론 그림의 소재도 성경적인 것이 많지만 다른 소재의 그림에도 누구든지 순수성과 진실성을 느낄 수 있고 경건한 마음이 생겨난다. 로크마커가 춘화라고 악평한 그 그림에는 그런 순수성과 진정한 영적 깊이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아름다움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과 진실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는 모든 예술이다 거짓이라 했고, 백남준도 예술은 사기라 했다. 그런데 그림이 어떻게 진지하며 순수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에 충실한 것이 예술의 목적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예술은 감정에 충실하여야 하고 느낀 것을 정직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물론 감정 그 자체가 아름답고 고상해야 좋은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감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정직하게 나타나지 않고 과장되거나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면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백남준이나 와일드가 예술을 거짓이라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예술적 감정이 순수하지 않거나 그들 자신의 작품이 그들의 감정에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적 감각에 철저히 충실한 작품을 창조해내도 감상하는 사람이 작가와 꼭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거나 같은 해석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그런 감상이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잘못 감상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 있다. 예술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 독립적인 위치와 의미를 갖게 되고 그에 대해서 느끼는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해석도 다를 수 있다.

이런 현상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혹은 사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하여 그 작가나 감상자가 사기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자적인 사기는 돈을 벌기 위하여 자기가 느낀 것을 과장하거나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무관하게 인기에 영합하거나 돈 있는 사람의 구미에 맞게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예배나 기도회에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가성으로 하는 기도를 듣는다. 평소에 내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음성과 리듬으로 기도하는데 감정을 과장해서 격하게 표현하거나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웅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별별 떨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며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기도다. 여간 지겹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듣기 좋으라고 한다면 나는 아마 역겨워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막아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더 더욱 역겨워하시지 않겠는가? 예술가의 작품도 비슷하지 않나 한다.

기독교 예술가들은 누구보다 더 순수하고 정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고상하면, 그리고 그것을 누구든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느낌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교회가 많이 등장하더라도 거기에 순수함과 진지함이 결여되면 춘화가 될 수 있고 소재가 성경과 무관해도 작가의 마음이 진실하고 경건하면 루오의 그림처럼 보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숭고한 감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인 문필가나 음악인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한다.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도 않으면서 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만 성경적이면 그게 복음성가가 되겠으며, 그런 노래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사람 들으라고 부르는 성가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역겨울 것이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순수한 감정과 정직한 표현이 기독교 예술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㉞